

등의 환경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일체가 되어 공동 수·배송을 주축으로 물류공동화 사업을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판매는 경쟁으로 하되 물류는 공동으로 한다” 라는 사고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국내의 부족한 부존자원을 극복하고 인력과 기술만으로 세계시장의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열악한 유통여건과 그에 따른 고다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과감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10,000\$ 이상의 고소득 시대에 들어서면서 문전수송(Door to Door System)의 확대 및 적기수송(Just-in-Time)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유통서비스의 요구, 수송수단간 결합을 통한 복합일관수송(Multimodal Trans)체계의 구축과 같은 유통구조의 개선 및 유통시설 개발의 요구가 그 어느때 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류공동화 분야는 그간 여건 미성숙 등이유로 여러 측면에서 논의정도로 그치고 법적, 제도적 뒷받침 또한 제대로 안 이루어져 아직은 걸음마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물류공동화와 같은 새로운 물류시스템도입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노력이 정부를 비롯한 학계와 기업이 산학협동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미력하나마 우리나라의 물류공동화 발전을 위해 폭넓고 활발한 연구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 15. 梁啓超로부터 申采浩로 수용된 사회진화론 인식에 관한 연구

-梁啓超의 新民說이 申采浩의 新國民說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학과 이 소 은  
지도교수 김 태 만

본 논문은 전통적 가치질서의 변화가 진행되는 19세기말-20세기초 중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양계초(梁啓超)와 신채호(申采浩)의 사회진화론 인식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19세기 중엽 동아시아에서는 서구 제국주의 세력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감에 따라 동

아시아 봉건체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그때까지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중화주의적(中華主義的) 세계질서는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까지 기존의 전통적 사고에 몰입해 있던 지식인들은 본격화된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사고체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되었다. 여기에서 새로운 현실인식의 필요성과 대응방식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팽창과정에서 드러난 서구의 위세가 개혁지향적 지식인들로 하여금 서구사상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 주요 동인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의 전통적 역할에 근본적 수정이 가해지는가 하면, 서구식 민족국가가 신체제의 모델로 수입되고 동시에 다양한 서구사상들이 수입되었다. 공리주의, 자유주의, 사회계약론, 민주주의, 사회진화론 등이 그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사회진화론이 서구의 부국강병의 원천으로 인식되어, 국가간 경쟁과 국민통합의 사상적 원리로 널리 수용되었다.

사회진화론이 유입되고, 그것이 지성계의 국가사상 정립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梁啓超, 申采浩는 중국, 한국에서 각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두 사상가의 사상은 전통성과 근대성의 갈등이 표출되는 시기와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게 되는 20세기초에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청말 변법자강파의 이론가이자 실천가였던 양계초는 서구열강의 각축장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자강의 출발점을 자유·민권·국가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국민(新民)'을 형성하는 데에서 찾았다. 양계초는 1902년 1월부터 1904년 5월까지 『신민총보(新民叢報)』를 발간하면서 거기에서 '신민론'을 썼다. 바로 이 『신민총보(新民叢報)』의 창간과 함께 양계초의 신민사상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거기서 그는 신도덕과 신국가사상을 가진 신민의 상을 제시하였다. 신민에 있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갖추어야 할 소질에 대하여 양계초는 공덕(公德), 국가사상(國家思想), 진취모험정신(進取冒險精神), 권력사상(權力思想), 자유(自由), 자치(自治), 진보(進步), 자존(自尊), 합군(合群), 생리분리(生利分利), 의력(毅力), 의무사상(義務思想), 상무(尙武), 사덕(私德), 민기(民氣), 정치능력(政治能力)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갖추면 중국 국민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제국주의 열강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양계초의 신민사상은 개화기의 한국에 전래되어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신채호의 신국민론은 「이십세기신국민(二十世紀新國民)」이란 저술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 저술은 양계초의 「新民說」을 전적으로 본받아 쓴 것으로 보인다. 신채호는 새로운 국민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질을 가져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각오(覺悟), 도덕(道德), 자유(自由), 의용(毅勇), 무력(武力), 진취(進取), 경제(經濟), 정치(政治), 능력(能力), 교육(教育), 종교(宗教) 등을 거론하였다. 이것들은 양계초의 「新民說」에서 거론된 공덕(公德), 국가사상(國家思想), 진취모험(進取冒險), 권력사상(權力思想), 자유(自由), 자치(自治), 진보(進步), 자존(自尊), 합군(合群), 생리분리(生利分利), 의력(毅力), 의무사상(義務思想), 상무(尙武), 사덕(私德), 민기(民氣), 정치능력(政治能力) 등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부분이 일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삼국은 전통질서의 내적 모순과 서구적 근대질서의 외적 충격으로 인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회진화론을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삼국에서의 사회진화론의 수용은 시대적 요구와 함께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 양계초, 신채호 두 사상가를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이들의 사상이 전통성과 근대성의 갈등이 표출되는 시기와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게 되는 1900년대 초에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조선말의 지성계에 대한 양계초의 영향이 두드러졌고, 사회진화론이 양계초를 거쳐 신채호에 수용되는 전과경로가 확인되고 있어, 이들의 사상이 유사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들의 국가사상에 대한 인식을 新民說과 新國民說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앞으로 양계초의 新民說과 신채호의 新國民說의 비교 연구에 있어서 이들의 위상과 실체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깊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